

신혜원의 가정법 산책 >> 글보기
에고 에고 내 로또...

lawhwshin on June 22, 2011

진상만 골라 골라 남 스트레스 주는 재미로 일하는 것 같은 직장 상사때문에 자리 좀 옮겨볼까나 머리 굴리던 아빠들, 이제나 저제나 애들 좀 크면 설거지 통에서 손빼고 자아 개발을 꿈꾸어왔던 엄마들, 요즈음같이 경기가 바닥을 치는 판에, 이 모두가 봄의 문턱에 선 우리 모두의 일장춘몽이 아닐까 싶다.

현실이 우리의 야무진 꿈을 이리도 외면하니, 또 언제쯤이나 돌아봐 줄지 기약없으니, 차라리 '로또(Lottery)' 당첨을 꿈꾸는 것이 통계학적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경기가 잘나가던 때에도, 우리 가주 한인 교포들 사이에서,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이란 얘기를 흔히들 하곤 했다. 또, 기껏 로또가 당첨된 후에, 주위 친지 눈 피해, 쉬쉬, 로또 당첨 찾으러 가다가 혼자만의 열광의 도가니를 못이겨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일화 등, 로또에 관한 웃지 못할 얘기가 많다 들었다. 가주 가정법에도 로또에 얽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전설적인 판례가 있다.

드니스는 친구들과 한 사람당 5 달러씩을 내서 공동으로 로또를 사곤 했다. 하루는 친구가 드니스에게 전화를 해, 670 만 달러 잭팟이 터졌다는 것이다. 드니스의 지분은 얼추 130 만 달러가 넘는 숫자였다. 순간, 드니스의 머리에는 그녀의 남편, 톰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 길로 그녀는 Lottery Commission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은 곧 이혼할 사람이니 로또 당첨금이 그녀의 엄마 집 주소로 우송되도록 서류를 만들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사서 이혼 소송을 신청했고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켰다. 원래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아, 톰은 변호사도 사지 않고 드니스와 그녀의 변호사를 만나 당일에 합의 이혼에 동의 했다. 드니스 변호사가 건네준 이혼 서류의 일부인 재산과 부채 공개서나 이혼 합의 판결문의 어느 구석에도 드니스의 로또 당첨에 대한 명시나 공개는 없었다. 톰은 별 생각없이 합의 판결문에 쿨하게 사인을 날렸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톰의 집으로 드니스에게 로또 당첨금을 할부로 받는 대신 전 금액을 일시 불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편지가 날라왔다. 톰은 갑자기 멍해졌다. 드니스의 로또 당첨을 확인한 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나도 좀, 그 돈 좀...'

여기서 잠시 가주 가정법을 살펴겠다.

가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 시 부부는 모든 재산 및 부채에 대하여 낱낱이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합의를 하든, 재판을 하든, 법이 정해 놓은 이 의무만은 피해갈 길이 없다. 공개의 방식도 가정 법원이 규정한 특정한 서류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부부 공동 재산은 물론, 개인 사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까지도 모두 기록, 공개돼야한다.

만약, 부부 공동 재산이든 개인 사유 재산이든,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공개하지 않고 이혼 판결문에서 누락시켜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법원은 이혼 판결이 들어간 이후에도, 누락된 재산의 100%를 몰수,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은 이혼 판결문에 일반적으로 명시, 포함돼있다. 상당 중, 백이면 백, 나오는

애기가, '이 부분은 상대방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러니 서류에서 빼 주세요.'라고 말한다. 본인 사유 재산이라도 나중에 억울하게 뺏기기 싫으면 정확히 공개, 기입해야 한다.

'아니, 그거 다 나 혼자 안먹고 안입고 빼 빠지데 번 거예요.' 그렇다면, 더 더욱 공개해야 한다. 결혼 기간 중에 개인이 벌은 모든 수입은 부부 공동 재산이다. 이 다음에는 망연자실, 말을 잇지 못하나, 얼굴에는 '에고, 에고,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팍팍 써 버릴걸,' 혹은, '뭐 이런 재수없는 변호사가 다 있어, 돈이나 받고 의뢰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그만이지, 잘난 척은 혼자 다하네, 어디 LA 에 변호사가 저 혼자야, 널리게 변호산데.'

자, 그럼 다시 드니스와 톰에게로 돌아가 보자. 이혼이 다 끝난 마당에 로또 당첨을 놓고 다시 법원을 찾은 이들에게, 판사님은 드니스는 로또가 당첨되자 바로 이혼을 신청한 점, Lottery Commission 사무실을 찾아가 톰이 절대 로또 당첨금을 받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점, 그녀의 엄마 주소를 통해 로또 당첨금을 지급 받은 점, 이혼 소송 당시 재산과 부채 공개서에 로또 당첨금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점, 이혼 합의 판결문의 조항에 양 당사자는 모든 재산에 대해 숨김없이 낱알이 공개한 바 있으며 차후에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면 최고 그 재산의 100%가 상대방에게 부여될 수 있음이 명시된 점 등에 근거하여, 드니스의 로또 당첨금 100%를 몰수, 톰에게 이전하는 명령을 내렸다.

드니스는 고등 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고등 법원 판사님들이 재판부 판사님의 팔을 번쩍 들어 주셨으니 결과는 매 한가지. 이 판례는 아직도 많은 이혼 소송에서 거론되는 판례이다.

바로 이러한 판례를 남긴 판사님 밑에서, 필자가 이 판례가 나오기 한참 전 그 옛날 법대생일때 가정법원에서 Externship 을 받았으니, 참 세상에... 이 글을 쓰면서도, 판사님의 특유한 말투와 표정이 떠올라 드니스와 톰의 로또 재판이 눈 앞에 살아 움직이는 듯 싶다.(끝)

**위 기사는 가정법 판례의 내용을 필자가 본 기사를 위해 각색했음을 명시합니다.